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㉔ '대장금' (2003)

늘 완전한 사람으로 살 뿐이다

한 해의 끝이 다가오면 지난 일 년을 돌아보며 새해의 각오를 다지기 마련이다. 일 년을 수행에 비유한다면 연말은 그동안 노력의 결과를 맞이할 때이기도 하다.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주 하고 딱 하루가 남으니 마지막 53주 차의 하루는 바로 구경의 부처님 자리라고나 할까.

53이라는 숫자를 보면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법을 구한 선재동자 생각이 난다.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구하는 여정에 나선 뒤 성별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이들 모두를 스승으로 삼아 법문을 듣는다. 마치 53스테이지처럼 펼쳐지는 선재동자의 구법 이야기는 여러 콘텐츠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영웅담이다. 영웅담은 고귀한 혈통을 가진 인물이 비정상적으로 출생해 시련을 겪다가 누군가에게 구출돼 그를 부모처럼 여기고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마침내 고귀한 지위를 되찾는 줄거리를 갖는 이야기를 말한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알에서 태어난 왕 이야기는 물론 온갖 성인들의 이야기까지, 영웅담 구조는 매체를 통해 흔히 만나 볼 수 있다.

이런 영웅담 구조를 갖는 많은 드라마 중에서도 특히 여성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바로 '대장금'이다. 〈중종실록〉에 실린 실존 인물 '의녀 장금'을 소재로 만든 드라마 '대장금'은 2003년 방영 당시 역대 드라마 5위의 평균 시청률을 기록하며 신드롬을 만들어 냈고, 방영 이후에는 여러 나라에 수출돼 한류 열풍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관심을 얻게 된 데에는 역경을 헤쳐 나가며 여인의 몸으로 어의에까지 오르는 영웅담 구조가 큰 몫을 했다.

장금(배우 이영애)의 부모는 내금위 군관과 궁녀 출신이다. 최씨 일가의 음모에 빠져 사약을 받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던 수라간 궁녀 박명이(배우 김혜선)를 궁에서 나와 은거해 살던 서천수(배우 박찬환)가 우연히 구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부부가 돼 딸을 낳고, 정체를 숨긴 채 오순도순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최씨 일가에게 정체가 탄로 나 화살을 맞은 명이는 "수라간 최고상궁이 되어서 어미의 억울한 사연을 꼭 최고상궁에게만 전수되는 비서(秘書)에 남겨 달라"는 유언을 딸 장금에게 남기고 숨을 거둔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산속을 헤매던 장금을 강덕구(배우 임현식)와 나주댁(배우 금보라)이 거둔다.



사진 출처=MBC 공식 홈페이지

역경 뚫고 어의 오르는 장금 영웅담
능력·지혜 이미 갖춘 완전 모습 그려
'이미 늘 완전한 사람' 자각이 수행

장금이 궁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인 영웅담 이야기가 펼쳐진다. 생각시 시절부터 눈에 띄었던 장금이 바로 명이의 딸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최씨 일가는 이제는 수라간 최고상궁이 된 최상궁(배우 견미리)의 주도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장금을 궁에서 내보내려 한다.

그럼에도 장금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재능과 노력에 더해 한상궁(배우 양미경)의 지원 속에 꿋꿋이 최고상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더욱이 한상궁이 실은 장금의 어머니 명이의 둘도 없는 친구였음을 확인하며 둘 사이는 한껏 애틋해진다.

그러던 중 유황오리 때문에 임금이 탈이 났다는 누명을 쓰고 장금과 한상궁은 제주의 관노비가 되고 제주로 가는 길에 장금의 등에서 한상궁이 숨을 거두며 장금의 위기는 최고조에 이른다.

관노비의 삶을 시작한 제주에서도 영민함을 잃지 않은 장금은 의녀 장덕(배우 김여진)을 만나면서 의술에 눈을 뜨고 의녀 장금이 되어 기어코 다시 궁에 들어감으로써 드라마 '대장금'의 2막이 시작된다. 의녀 장금 앞에도 최씨 일가가 꾸며 놓은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금은 과거 유황오리 사건의 진실을 밝혀 한상궁은 물론 어머니 명이의 억울함마저 풀고 유언을 지킨다.

결국 임금에게 의술을 인정받은 장금은 '대장금'의 칭호를 받으며 어의가 됨으로써 드라마 '대장금'은 고귀한 지위를 되찾는 영웅 이야기를 완성한다.

드라마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온갖 고초와 역경을 겪는 장금이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과 지혜를 갖췄다는 사실이다.

생각시 시절의 장금을 처음 가르칠 때 한상궁은 끊임없이 물을 떠 오라고 하면서 음식을 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의 몸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함을 알려 준다. 하지만 이것은 어머니에게 이미 배워서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장금은 궁에 들어오기 전부터 수라간 상궁으로서의 재질을 갖추고 있던 것이다. 그 유명한 "홍시 맛이 나서 홍시가 들어 있다"고 하는 장면 역시 타고난 장금의 재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선재동자의 구법여행도 마찬가지다.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만나면서 새롭게 법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가 갖춘 완전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화엄경〉 '입법계품'의 내용이다.

이것을 경전에서는 52번째 선지식인 미륵보살의 법문을 듣고 마지막 53번째에 최초의 선지식인 문수보살을 다시 만나는 것으로 표현한다. 모든 수행을 마치고 최종 단계로 나아갔더니 최초의 문수보살에게 성불의 인가를 받는 장면, 이것이 그 유명한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이다. 처음으로 수행할 마음을 낸 순간이 바로 깨달은 순간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이미 수행은 완성됐다는 뜻이므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진작부터 깨달은 이들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흔히 수행은 부정적인 면을 덜어 내고 긍정적인 면을 새로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늘 완전한 사람임을 자각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런 점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말이 '장엄'이다. 완벽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면을 더 장식한다는 것이다.

자, 1년 365일 52주 다음의 하루를 지내면 다시 1월 1일이 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마냥 부족한 것 같고 새로운 능력치를 채워야 할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본래부터 온전한 사람들이라는 불교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나의 이 모습 이대로가 바로 완전한 의미를 갖는 완벽한 사람임을 자각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성과가 있을 것도 없고 새롭게 시작할 일도 없다. 늘 완벽한 나는 새삼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늘 완전한 사람으로 살 뿐이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근기 미성숙한 자에 대승 전하지 말라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㊼ 대승망집 기교불일치의 배척
(大乘妄執 機教不一致의 排斥)

"성문과 독각은 자기의 모든 번뇌를 끊지만, 일체 유정의 번뇌를 즐겨 끊지 않기 때문에 … 또한 불보살의 지혜 바퀴를 따라 보리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승의 그릇이 아니며, 친구도 없이 혼자서 열반의 성에 들어가 수행하기 때문에 대승의 그릇이 아니니라. 선남자야, 어떤 중생은 성문승과 독각승의 법에 대해 고생하면서 부지런히 공부하려 들지 않는다. 이런 중생은 아직 근기가 성숙하지 못하고, 하열하며 정진하는 힘이 미약하다. 만일 누가 (그에게) 미묘하고 깊은 대승의 바른 법을 일러 주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모두 큰 죄를 범하고, 또 일체 부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성문과 독각의 법에 대해 부지런히 공부하려 들지 않는 중생은 근기가 성숙하지 못하고 정진하는 힘이 약하므로, 갑자기 미묘하고 깊은 대승의 법을 들으면 실로는 어리석으나 스스로를 총명하다고 생각하여 단견(斷見)에 빠지고, 전도된 생각에 떨어져 무인론(無因論: 인과를 믿지 않음)에 집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인과에 대하여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내고서, 선악의 업을 부정해 망령되게 대승을 말하면서 나의 법을 무너뜨리고 어지럽힌다. … 이렇게 어리석고 전도돼 남을 배척하는 마음으로 대승의 법은 칭찬하고 옹호하여 널리 퍼지게 하면서 성문과 독각의 법은 헐뜯고 비방·은폐하여 널리 퍼지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성문·독각·무상승을 의지하지 못하고서 속세를 버리고 출가해 구족계를 받아 비구 성품을 이뤘다 해도, 선법(善法)의 인연을 닦아 모으지 못하면, 나의 제자로서 법의 그릇이거나 아니거나 … 이같이 인과를 부정하는 단멸론(斷滅論)자는 사람들 속에 있지마는 실은 악귀이니라. … 그들은 몸을 못 쓰게 되고 반드시 무간지옥에 날 것이다.

이런 단멸론자는 나의 바른 법을 깨뜨리고, 계율을 지키거나 깨뜨리거나 계율이 없는 나의 제자를 핍박, 괴롭히고 편안하게 선업을 닦지 못하게 하나니, 이런 인연으로 몇백 천 겁 동안 온갖 나쁜 세계에 빠져 미혹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 이같이 어리석은 이는 사람의 몸도 얻기 어렵거늘, 하물며 성현의 법그릇을 이룰 수 있겠는가? 더욱이 성문·독각이 증득한 열반도 얻을 수 없거늘, 어찌 무상의 정등각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중생의 온갖 과실은 모두 성문승과 독각승의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먼저 대승에 들어가고자 하였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비유하면 틈이 많은 진흙 병에 기름이나 젖(우유)을 넣어 두면 모두 새 버려서, 병과 기름을 다 잃고 마는 것과 같다. 이같이 중생도 성문·독각의 법에 대해 공부하려 들지도 않고 근기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 정진의 힘이 미약함에도, 누가 만일 그에게 미묘하고 매우 깊은 대승의 법을 말해 주면 말하고 듣는 사람이 모두 큰 죄를 받으며 일체 부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나니, 여러 가지 과실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또 세간의 창고가 무너져 구멍이 났을 때 보물을 넣어 두면 손실이 있는 것처럼 중생도 이승의 법을 헐뜯고 비방하면서 믿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을 때, 그에게 대승을 말하면 그것을 여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죄를 짓고는 끝없이 나쁜 세계로 돌아다니게 되느니라.

또다시 비유하면, 물이 많이 새는 배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고 큰 바다에 뜰 수 없는 것처럼, 탐욕과 질투가 많은 중생이 이승의 법을 배우지 않고 망령되게 대승이라 자칭하고 단견을 갖고 교만하고 의심하면, 새는 몸(번뇌의 몸)으로서 일체지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또 눈이 먼 장님은 갖가지 보배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교만·방탕하여 공견(空見)에 집착하여 이승을 배우지 않으면, 슬기의 눈이 없어 대승의 공덕 보배를 나타내 보이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몸에 냄새가 나고 더러우면, 비록 훌륭한 향을 발라도 향기롭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승의 법을 부지런히 닦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살생 등의 삿된 견해를 끊지 않으면, 아무리 위 없는 대승의 법을 배워도 끝내는 매우 깊은 그 법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또다시 비유하면, 돌밭에 좋은 종자를 심고 가꿔도 끝내 그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중생도 이승의 법에 대해 부지런히 닦기를 좋아하지 않고 오욕만 탐하여 만족할 줄 모르면, 그 몸에 대승의 종자를 심고 부지런히 정진해도 끝내는 이루지 못하느니라.

또한 옹기에 먼저 독약을 넣었다가 이후 석밀(꿀)을 넣으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승법을 배우지 않고 무인론에 집착하면 그를 위해 대승을 말해도 자타의 이익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또 어리석고 미친 사람에게 음악을 연주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같은 중생도 이승의 법을 배우지 못하고 탐·진·치 등의 사나운 번뇌가 그 마음을 어지럽히고, 무인론과 단멸론으로 근기가 성숙하지 못하면, 아무리 대승을 말해도 그는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오래지 않아 그 몸을 못 쓰게 되고 … 참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무간지옥에 날 것이니라."

〈송림사 주지〉

